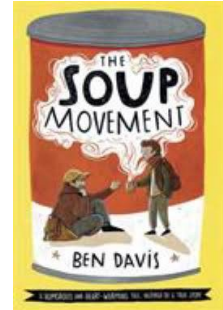


JUVENILE TITLES

FICTION

제목 : THE SOUP MOVEMENT
가제 : 수프 한 통의 기적
저자 : Ben Davis
출판사: Oxford University Press,
발행일: 2020년
분량 : 224 페이지
장르 : 문학



* 작은 선행이 만든 커다란 기적에 관한 실화를 바탕으로 쓰여진 감동적인 이야기

조던은 마침내 잘나가는 아이들이 잔뜩 모여 있는 점심 식사 자리에 초대 받았다. 하지만 그는 그런 자리에까지 수프를 들고 가는 것이 부끄럽게 느껴졌다. 결국 조던은 그 수프를 다른 이에게 쥐버렸다. 그리고 조던의 이 행동은 여러 사람들이 보기에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에게 베푼 친절로 해석되었고 조던은 의도치 않게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다. 정신 건강, 노숙자,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등 우리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복잡한 문제들에 대해 다루며 한 작은 행동이 어떤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 보여주는 이 소설은 영국 옥스포드에서 있었던 실화를 바탕으로 한 감동적인 이야기이다.

오랜 시간 동안 도시에서만 살았던 조던은 도시보다 훨씬 한적하고 공기가 좋은 이 곳 폰즈스테드로 이사 오게 된 지 6개월 정도 된 상태였다. 어느 날 그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 개와 싸우고 있던 고양이에게 물리고 말았다. 그리고 때마침 집에 있던 엄마가 조던의 비명을 듣고 뛰쳐나왔고 그를 병원으로 데려가기 위해 재빨리 그를 자동차에 설치된 유아 시트에 앉혔다. 조던은 열세 살이나 된 고학년이었지만 유약한 몸 때문에 체육 수업에도 참가 할 수 없었고 조던의 엄마 클레어는 언제나 그를 어린 아이처럼 다루었다.

병원은 차로 한 시간이나 가야 하는 곳에 있었고 엄마는 운전 하는 내내 바짝 긴장해 있었다. 어린이 병동을 떠난 이후 정기 검진을 받던 그가 마침내 정기 검진의 의무로부터 자유의 몸이 된 지 처음으로 다시 병원에 가는 길이었기 때문이다. 다행히도 조던의 몸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고 조던의 주치의였던 의사 역시 조던이 이제 운동을 해도 좋다고 말해주었다. 조던은 그 말을 듣자 눈물을 흘렸고 조던의 엄마 역시 곁에서 훌쩍거렸다. 하지만 조던이 눈물을 흘린 건 기쁨 때문이 아니라 죄책감 때문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조던은 엄마, 아빠, 누나 아비와 저녁 식사를 하며 그가 이제 자전거를 타고 운동을 할 수 있을 만큼 건강해졌다는 소식에 대해서 함께 축하를 나누었다. 하지만 아비가 곧 부

모님에게 조던의 건강이 좋아졌으니 예전에 살던 곳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고 묻자 조던의 마음은 다시 싸늘해졌다. 공기 좋은 평화로운 환경에서 조던이 살 수 있도록 부모님이 이 곳으로 이사 오기로 결정하는 바람에 누나가 친한 친구들이 있는 곳을 떠나 이 곳으로 왔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단 한번도 조던을 원망하는 말을 한 적은 없었지만 조던은 누나가 남몰래 자신을 비난하고 있을 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죄책감이 들곤 했다.

하지만 한편으로 조던은 다시 자전거를 타며 머리칼 사이로 들어오는 바람과 자유를 느낄 수 있게 되었다는 생각에 설레었다. 그러나 엄마 클레어에게는 걱정거리가 더 생긴 것 같았다. 그녀는 아들을 위한 맞춤형 보호 헬멧을 만들었는데 그것은 전혀 자전거용 헬멧처럼 보이지도 않았고 우스꽝스럽기만 했다. 또한 조던이 체육 수업에 참가하는데 무리가 없도록 각종 비타민과 영양분이 가득한 특별 수프까지 만들어 조던의 책가방에 넣어주었다. 조던은 드디어 유아용 카시트에서 벗어나 마음껏 자기가 원하는 곳을 다니며 학교에 갈 수 있게 되어 기뻐했다.

그러던 어느 날 조던은 드디어 소위 ‘잘 나가는 아이들’이 모여 있는 점심 식사 자리에 초대 받았고 기쁜 마음으로 자전거에 올라탔다. 하지만 바깥에서는 평소 갓 이사온 조던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던 월과 맥스웰, 다리아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 아이들은 왜 조던이 이 곳에 이사 오게 되었는지 꼬치꼬치 캐물었고 월은 조던의 몸을 잡고 위협적으로 이리저리 흔들기까지 했다. 그리고 갑자기 조던 집 근처에 있던 한 노숙자 텐트로 관심을 보이더니 텐트 바깥에 세워져 있던 의족을 발견했다. 조던은 그 의족을 들고 연못가로 달려가는 월을 잡으려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고 결국 그는 그것을 연못 속으로 던져 버리더니 다른 친구들과 사라져버렸다. 조던은 당시 잘 알지는 못했지만 그 텐트에 한 남자가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조던은 그 의족을 차가운 연못 속에서 건져 올렸고 잠에서 깬 그 노숙인에게 얼떨결에 의족과 함께 엄마의 수프까지 쥐버렸다. 그 노숙인의 자신의 이름을 ‘해리’라고 소개했고 이라크 전에서 입은 부상 때문에 다리 한쪽을 잃게 된 것이라고 설명해 주었다 또한 그는 이 마을에는 자신뿐만 아니라 이런 수프를 간절히 원하는 노숙자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그 때, 조던은 이 마을에서 유일하게 사귄 자신의 친구 ‘리오’가 말해준 ‘미츠바 (유대교 선행)’에 대해 떠올렸고 자신이 뭔가 멋진 미츠바를 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그는 엄마에게는 자신의 친구들이 엄마가 만든 수프에 열광한다며 친구들을 위해 수프를 만들어 달라고 거짓말 한 후 자전거를 타고 노숙자들에게 그 수프를 가져다 주었다. 조던의 이 작은 선행은 자신을 괴롭히던 월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미쳤고 조던은 마을의 영웅 같은 존재가 되었다. 한 사람의 작은 선행이 어떤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 보여주는 감동적이고 따뜻한 이야기이다.

<저자 소개>

벤 데이비스 (Ben Davis)는 대학에서 영어를 전공했으며 6년 이상 스탠드업 코미디언으로 일했다. 그 이후로 그는 라디오쇼의 대본을 쓰는 것부터 인사말 카드의 문구를 작성하는 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종류의 글을 썼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평생의 꿈이었던 어린이들을 위한 책을 쓰는데 성공했다.

제목 : MORGANA MAGE
가제 : 로봇에 빠져버린 마녀 모가나
저자 : Amy Bond
출판사: Chicken House
발행일: 2021년 1월 7일
분량 : 302 페이지
장르 : 성장 소설



*** 마녀이지만 로봇을 사랑하는 공학 소녀! 너무나 다른 두 세계 사이에서 갈등하는 한 소녀의 성장을 다루는 SF 판타지 소설**

어린 마녀인 모가나는 자신이 속한 마법의 숲 공동체 사람들과는 달리 마법보다는 도시와 도시에서 볼 수 있는 현대 기술에 더욱 매력을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도시에서 떨어진 폐쇄적인 공동체에서 살고 있는 마녀로서 그녀가 기술에 가장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행위는 고대 기계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고양이 키티를 쓰다듬는 것뿐이었다. 모가나는 오랜 전통의 규율과 비밀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세계로 나아갈 수 있을까? ‘마녀’와 ‘공학자’라는 두 정체성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한 소녀에 관한 재기발랄하고 재미 있는 소설이다.

열한 살 소녀 모가나는 종종 자신이 마녀가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늘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했다. 사실 모가나는 빗자루를 타고 나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았고 아직 또래 마녀들과 빗자루 타는 법을 배우느라 잔뜩 지쳐있었다. 모가나는 빗자루를 제대로 타지도 못해 떨어지는 모습을 친구들에게 보여주기도 싫었고 자신에게 있는 마법적 능력이 너무 약한 것만 같아 거의 포기한 상태였다. 모가나의 엄마는 그런 그녀에게 마법이란 각자 자신을 둘러싼 세상, 공기, 빛, 물, 불 속에 있으며 그들을 향해 마음을 열기만 하면 강력한 마법과 연결 될 수 있다고 말했지만 모가나는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마법의 힘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모가나가 살고 있는 마법 공동체의 장로들과 연줄이 닿아있는 모가나의 오빠 털로 역시 엄마처럼 모가나를 다독이려고 했다. 털로는 좋은 인맥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간 마법사에게 마음을 잘 열지 않는 동물들에게 이주마다 특별한 빛을 발견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모가나가 평범한 마녀들처럼만 잘 행동한다면 직접 마법 기술을 가르쳐주고 자신의 인맥을 이용해 사람들이 모가나를 함부로 대할 수 없게 만들어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모가나는 결코 공동체 사람들과 비슷한 생각을 가진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다. 모가나는 오빠 털로조차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지 않는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팠다.

그나마 모가나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던 아빠는 어느 날 모가나에게 물약을 사러 도시에 갈 예정인데 함께 도시에 가보는 게 어떨겠냐고 물었다. 모가나는 그 말을 듣자마자 잔뜩 흥분했고 최대한 기쁜 티를 내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 이 곳 공동체 사람들은 도시에 나가면 도시 사람들과 이 상한 기계에 둘러싸인 곳을 다녀야 하기 때문에 도시로 가는 일을 벌처럼 여겼기 때문이다. 하지

만 모가나는 사실 언제나 숲으로 숨어 들어가 언덕 아래로 내려다보이는 도시의 모습을 몇 시간 동안이나 바라보며 상상의 나래를 펼치곤 했던 아이였다. 모가나는 자신이 상상 속에서만 보았던 도시의 풍경을 직접 보게 될거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두근거렸다. 모가나는 부디 엄마가 아빠와 자신이 도시로 가는 것을 허락해주기만을 바라면서 엄마의 입술을 간절한 눈으로 쳐다보았다. 다행이도 그녀는 한 번 한숨을 쉬더니 승낙을 해주었다.

모가나는 도시에 진입하자마자 맑은 아침 햇살에 빛나고 있는 금속과 유리, 고층 빌딩을 바라보며 할 말을 잃었다. 잘 닦인 길가에는 빠른 속도로 자동차들이 지나다니고 있었고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오는 지하철의 모습도 보았다. 모가나는 높은 건물들을 둘러보던 중 건물 꼭대기에서 갑작스럽게 빛이 강렬하게 번쩍이는 것을 보았고 그 빛의 정체가 무엇인지 아빠에게 물었다. 그러자 그는 그 빛은 바로 도시 사람들이 순간 이동을 할 때 발생하는 빛이라고 설명해주었다. 모가나는 도시에서는 빛자루 같은 것 없이도 편리하게 이곳 저곳을 옮겨 다닐 수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모가나는 점점 도시의 중심을 향해가면서 자신이 가고 있는 곳이 마법 자체는 불법이지만 여전히 일부 마법사와 마녀들이 불법적으로 모여 살고 있는, 도시에서 가장 낙후된 곳이라는 것을 곧 깨달았다. 방금 전 화려한 도시의 첫인상이나 모가나가 언덕 위에서 꿈꿔왔던 모습과 달리 도시의 거리는 사람들로 붐볐고 모가나는 이 세상에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다는 사실에 질식할 것만 같았다. 그리고 사람들은 각자 귀에 이상한 장치를 꽂고 혼잣말을 하고 있느라 바빠 보였다. 아빠는 모가나에게 도시 사람들은 바람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 없이 저렇게 작은 기계를 이용해 멀리 있는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다고 알려주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모가나를 가장 놀라게 만든 것은 은빛 금속으로 만들어진 로봇이었다. 모가나의 아빠는 그녀에게 로봇은 위험하다고 경고했지만 모가나는 그들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다. 모가나는 로봇에게 정신이 팔려 한 여자와 부딪혔고 그 여자는 모가나를 보자마자 왜 마녀 아이가 도시 바깥에 있지 않고 도시까지 오게 되었냐며 무례하게 굴었다. 하지만 모가나는 그 무례함에 별로 놀라지 않았다. 모가나가 이전에 만난 유일한 도시 사람은 교육 감독관이었는데 그들은 학교에 들어가야 할 연령이 된 마법 공동체 아이들을 데려가겠다는 핑계로 마법 공동체를 와해하려고 했었기 때문이었다.

모가나는 아빠가 물약을 사러 간 사이 가게 바깥에서 아빠를 기다리고 있다가 엄마가 늘 말했던 도시에 살고 있는 사악한 마법사들로 보이는 사람들을 마주쳤다. 그들은 모가나를 로봇 스파이로 의심했고 모가나는 그들을 피해 도망치려던 중 길을 잃고 말았다. 그리고 한 낯선 곳에서 한 고양이와 로봇을 만났다. 모가나는 이들과의 만남을 통해 도시에 있는 로봇 공학 학교에 가고 싶다는 꿈을 가지게 된다. 모가나는 과연 마녀이자 공학도로 살아갈 수 있게 될까? 기발한 상상력이 넘치는 모험담이자 성장 소설이다.

<저자 소개>

에이미 본드 (Amy Bond)는 영문학을 전공하고 도서관 및 정보 과학 전공으로 석사 학위를 수료했고 현재는 더블린에서 사서로 일하고 있다.